

### 공동체 소식

#### 2020 신앙여정 점검표

-2020 신앙여정 점검표를 드립니다. **개인별로 1년동안 '주일미사, 평일미사, 성사생활, 기도생활'을 점검**하고 돌아보실 수 있습니다. 스스로 체크하여 보다 개선된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교구대회를 통해 준비된 본당 계획으로 신앙여정 점검표 작성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 평협회의

-16일(일) 오후 1시 나자렛관

-독서자 모집합니다. 전례부에 문의 바랍니다.

#### 미사안내

-18일(화), 19일(수) 평일미사 없습니다.

-미 중남부지역 사제모임 관계로 평일미사가 없었습니다.

#### 성지가지 회수

-23일(일)까지 가정 십자가고상에 걸려 있는 성지주일에 축복한 나뭇가지를 본당에 가져와 주십시오.

#### 복사단 모임

-23일(일) 미사 후 나자렛관

#### 봉사활동 참여자 모집

매월 둘째 토요일에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일시 : 3월 14일(토) 오전 10시~12시

-장소 : 135th TumStyles Thrift Store

-3월 8일까지 봉사부장에게 신청

#### 교무금 계좌이체

-교무금 **계좌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재무부장(차장)통해 필요한 정보를 받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 구역/반모임

4구역2반 14일(금) 저녁 7시 김대연 요셉 가정

2구역1반 21일(금) 저녁 7시 김태중 예레미아 가정

3구역 21일(금) 저녁 7시 박희영 카타리나 가정

4구역1반 22일(토) 저녁 7시 이우영 가브리엘 가정

구역/반장 모임 23일(일) 오후 1시 나자렛관

#### 전례 상식

-주일헌금은 자선행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무엇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일주일간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에 다시 내가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 행위입니다. **하느님께서 는 우리의 정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성당의 중심은 제대입니다. 또한 중앙통로는 전례때에 주로 사용됩니다. 제단에 드나들거나 제대 앞을 지나는 이는 모두 제대에 깊은 절을 해야 합니다(주교예절서 72항 참조). 독서자는 독서대에 오르기 전에 미사 전례의 중심인 제대를 향하여 절을 합니다.

#### 제대초 봉헌 감사

-제대초 봉헌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8명)

#### 미사 후 뒷정리에 함께 하는 아름다운 손을 하느님께 서는 기다리십니다.

- 매 주일미사 후 간단하게 뒷정리 합니다.

- 청소 담당은 편의상 구역을 나뉘었을 많은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Holy Trinity 본당 행사관계로 오늘은 체육관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전례 성가

	입 당	예 물	성 체	파 견
금 주	421	166	501	437
차 주	54	217	502	68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박태주 로마노	고영방 스테파노	김명은 안젤라
차 주	김대연 요셉	문석찬 요셉	백문주 엘리사벳

#### 미사 복사

	시종복사 1	시종복사 2
금 주	김정원 안젤라 김정빈 바오로	차한나 가브리엘라 강윤후 그레고리오
차 주	김지안 요한 김정훈 로베르토	강미정 클라우디아 김하울 루카

#### 헌금 봉사자

금 주	김병철 베네딕도, 김동술 요한
차 주	홍순익 마르티노, 차상욱 펠릭스

#### 애찬 봉사자

금 주	최은미 아네스, 장보혜 프란체스카, 조경희 요안나 프란체스카
차 주	김주연 세실리아, 박희영 카타리나, 이영민 엘리사벳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수요일: 7:30 PM  
첫 토요일: 10:00 AM  
(신심미사)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신자교리  
주일 10:00 AM

# 천주교 캔사스대교구 한인성당

##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한인성당

Blessed Jeong, YakJong Augustine Korean Catholic Community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www.kckcatholic.org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korean1481@gmail.com

회 장 고영방 스테파노  
(913) 227-9040

총 무 박태주 로마노  
(610) 212-9539

유아세례: 전례부에 신청

주일학교: 주일오전10시  
나자렛관



### 오늘의 전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복음에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알려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사명에 따라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지 진지하게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 안에 살면서도 세상의 논리에 현혹되지 않고 복음 정신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간절하게 청합시다.

### 그림 묵상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마태 5,16)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교회로부터 빛을 받아들입니다. 이 빛은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날마다 행하는 선과 믿음을 확장시켜 줍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제 1 독 서 : 이사야, 58,7-10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 나오리라.>

화 답 송 : ◎ **올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 올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그 빛은 너그럽고 자비로우며 의롭다네. 잘되리라, 후하게 꾸어 주고, 자기 일을 바르게 처리하는 이! ◎
- 그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으리니, 영원히 의인으로 기억되리라. 나쁜 소식에도 그는 겁내지 않고, 그 마음 굳게 주님을 신뢰하네. ◎
- 그 마음 굳세어 두려워하지 않네. 가난한 이에게 넉넉히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움은 길이 이어지고, 그의 뿔은 영광 속에 높이 들리리라. ◎

제 2 독 서 : 코린토1, 2,1-5 <나는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신비를 선포하였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

복 음 : 마태오 5,13-16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 생명의 말씀

## 눈먼 이에게 눈을!



여덟 번의 '참행복' 선언(마태 5,3-12)에 바로 이어진 오늘 복음에서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절로 두 번째 행복 선언이 연상됩니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마태 5,4) '슬퍼하는 사람들'이란 표현 대신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울고 있는 사람들'이란 표현을 즐겨 사용하시는데, 저도 이 표현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성공 지향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요즘 세상의 주된 흐름에 반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는 사람들을 하느님께서 축복해주신다는 말씀에 용기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절로 '나인'이라는 마을에 들어서다가 외아들이 죽어 삶의 모든 희망이 사라진 어느 과부의 안쓰러운 모습을 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함께 마음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과부에게 다가가 위로해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봅니다(루카 7,11-17 참조). 동시에 교황님께서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시며 안아주시는 모습도 떠올려봅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리고 교황님의 모습에서 저는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 빛나는 걸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빛나는 능력이란 바로 '공감'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약자를 돕고자 하는 '공감 능력'이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영장류학자인 프란스 드 발(Frans de Waal)은 예컨대 쓰러진 동료를 일으켜 세우려고 애쓰는 코끼리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동물들은 서로를 짓

밟거나 자기 것만을 챙겨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협동하고 공유하면서 살아남는다." 이렇게 약자를 돕는 모습을 동물 사회에서는 자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인간은 공감 능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이 크다면, 너무 지나친 걱정일까요? 적어도 교황님은 비슷한 걱정을 하고 계신 듯 싶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가장 큰 위험은 온갖 극심한 소비주의와 더불어 개인주의적 불행입니다. 이는 안이하고 탐욕스러운 마음과 피상적인 쾌락에 대한 집착과 고립된 정신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 더 이상 다른 이들을 위한 자리가 없어 가난한 이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목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고 ... 선행을 하고자 하는 열정도 식어 버립니다."("복음의 기쁨", 2항) 그렇다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교황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든 바로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 날마다 끊임없이 그분을 찾으려는 열린 마음을 가지도록"("복음의 기쁨", 3항) 권고해줍니다.

교형자매 여러분, 조금은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오늘 복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며 사랑과 자비의 예수님을 닮아, 다른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신희준 루도비코 신부 | 양천성당

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전례 예식 자체로서 효력이 생기는 성사와 달리 강복은 축복받는 사람의 신앙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 하느님의 선하신 뜻을 찾는 사람이라야 하느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온전히 깨달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강복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사람의 활동에 관계된 물건이나 장소, 음식에도 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강복은 공적인 전례 안에서는 성직자가 주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평신도 역시 사적 행위로서 하느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청할 수 있다. 우리가 식사 전 기도 중 "... 이 음식과 저희에게 강복하소서"라고 청하는 것이 그 예다. 강복은 원칙적으로 가톨릭신자에게만 베푸는 것이지만, 예비신자나 교회의 금지규정이 없다면 비가톨릭신자에게도 강복을 줄 수 있다. 새해를 맞아 가족과 이웃들에게 세속적인 복만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청하며 기도하면 어떨까.

가톨릭신문

### 생활 속 영성 이야기

## 까막눈 뜨다

사랑받는 존재라는 인식,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  
그리 영특하지도 예쁜 것도 아니고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 나를  
하느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나의 열등감을 일시에 폭파시켰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새삼 눈을 뜬 것이다

나는 유아 세례를 받았다. 내가 선택한 신앙이 아니다. 자라면서 친구들로부터 네가 원하지도 않은 것을 억지로 받아들이야 했으니 참 어려웠겠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런데 나는 누누이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답하곤 하였다. 내가 세상일을 알고 이것저것 따질 나이에 종교를 택해야 했다면 아직도 망설이고 있을지 모르는데, 아니면 아예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았을지도 모르는데, 어렸을 적부터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했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고,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어도 부모님이 입학시켜 주지 않았다면 여전히 까막눈으로 남아 있게 되었을지도 모를 일인 것처럼.

그런데 사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지나서 보니 하느님께서 사랑이심을 인식하게 된 이후의 일임을 알게 되었다. 당연히 주일학교에 다녔고 미사에 빠진 적도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전례에 참여하고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무에 불과했던 것 같다. 하지만 그조차도 내 마음 발을 일구고 계셨던 그분의 작업이었음을 이제는 알 수 있다. 가, 나, 다해 미사를 통해 수십 번씩 들었던 성경 구절들, 종교 용어들, 믿을 교리 등으로 적어도 내가 하느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을 만큼, 어쩌면 가시덤불을 건너 낸 발 정도로는 준비될 수 있었을 것이니. 이제 그분께서 씨앗을 뿌리실 터인데 언제 어떤 방법을 택하실 것인가.

중학생 때 어느 수녀님을 만났다. 토요일에 성당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낯선 수녀님께서 친구들 몇몇과 함께 부르시더니 모임을 하나 시작하지 않겠느냐고 물으셨다. 함박웃음을 짓고.... 가끔 성령께서는 그렇듯 우리에게 따지고 판단할 시간을 주지 않으시는 듯하다. 수녀님의 기쁨에 뉘였을까, 즉시 그러겠다고 했고, 그다음 토요일부터 모임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첫 모임 때 들었던 이야기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코 잊히지 않는데, 하느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특별히 사랑하시며, 우리는 형제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신 것이다.

막 사춘기에 들어서던 시기여선지 하느님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무척 놀랍게 들렸다. 그리 영특하지도 않고, 예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유한 집안이 아니라서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 나를 하느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은 나의 열등감을 일시에 폭파시켜 버렸다. 그렇구나, 저

높은 곳에 계시는 하느님께서 내려다보신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재주나 조건은 그저 도토리 키 재기에 불과한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것이다. 더 이상 부러워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에 눈을 뜬 것이었다. 그 뻔한 사실을 왜 그때서야 알아듣게 되었을까. 아니, 그때라도 알아듣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나의 삶은 얼마나 미미하고 쓸쓸했을까! 그렇게 나는 포콜라레 영성을 만났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얼마나 신났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신 어머니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어머니를 도와드렸다. 시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그 작고 평범한 행위가 주는 기쁨 역시 그날 나의 열등감이 폭파된 것만큼이나 아주 대단한 것이었다. 참으로 신선했고, 살맛나는 일이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라는 인식,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다. 그렇다면 하느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당연히 하다! 내 삶이 헛헛할까 하여 포콜라레 영성을 통해 당신께서 사랑이심을 밝혀 보이신 그분, 이 사실만 보아도 그렇지 아니한가!

장정애 마리아고레띠 | 마리아사업회

### 이 말이 궁금해요

#### 강복(降福, blessing, benedictio)

- 하느님이 내려 주시는 복, 혹은 하느님이 복을 내려 주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를 맞은 우리는 이웃과 지인들에게 복을 빌어주며 한해의 첫 인사를 시작한다. 복을 빌어주는 것은 교회에서도 중요한 행위다. 성경에서도 창세기에서 하느님이 살아있는 생물이거나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는 것'을 시작으로 구약과 신약 전체에 걸쳐 복을 빌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 '복'이란 단순히 세속적인 복락이 아니라 하느님이 내려주시는 복이다.

교회가 전례 안에서 행하는 '강복'은 흔히 '축복'이라고도 부르며 준성사에 해당한다. 준성사는 성사(聖事)에 준해 제정한 예식으로, 거룩한 표징을 드러내며 우리의 생활을 성화시켜 주는 행위다. 대표적인 강복의 모습은 사제가 신자들을 향해 십자성호를 그으며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